

We are all artists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분명 특별히 선택된 누군가만의 것은 아닐겁니다.

피카소가 당대에 없던 그림을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전혀 새로운 조각을 만들었다고, 그들만이 창조적인건 아니니까요.

1917년, 마르셀 뒤샹이 '예술은 왜 아름다워야만 하나?' 라고 질문한 순간 예술의 방향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우리도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말이지요.

사육을 짓던, 금융상품을 개발하던, 그 창조적 과정을 시작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 무엇을 담을까? 어떻게 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조각을 다듬듯 하나하나 깎아내다 보면 완성된 동상이 될 것이고, 그 완성된 동상은 수백, 수천 번의 질문과 결정,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난 더 많은 질문과 수정이 축적되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린 하나의 본질을 계속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더불어 풍요로워 질 것인가?"

수백, 수천의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저희와 더불어 풍요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의 '상상력'을 깨우며..

우리는 모두 예술가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 윌 곰퍼츠 -

(주)에이치앤에이파트너즈 대표 박훈정

JANH JANG

Lullaby For Blind

‘자라나다 피워내다’와 같은 키워드에서 착안해 꽃의 이미지를 작은 인체로 옮겨 마치 요정과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낸 작품들이 바로 장재혁 작가의 ‘블루머 시리즈(Bloomer Series)’입니다. 생각, 이상, 꿈, 희망, 폭넓게는 삶에 대한 자세를 긍정적 이미지로 해석해낸 블루머 시리즈는 다양한 행동패턴과 검은색, 그리고 좌대와 같은 오브젝트를 통해 한층 그 의미를 더해줍니다. 평소 우리가 접한 삶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에 앞서 문제인식의 단계를 목적으로 주제 삼은 장재혁작가의 작품들은 〈Lullaby For Blind〉를 통해 앞을 볼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자장가의 은유로 새로운 블루머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내면을 뜻하는 다양한 층위의 검은색을 품고 길을 빛의 색으로 겹겹이 둘러싸은 이번 작품들은 블라인드의 의미처럼 어쩌면 눈을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스스로 감혀버린 우리에게 부드러운 빛의 길을 선사하고픈 작가의 치유의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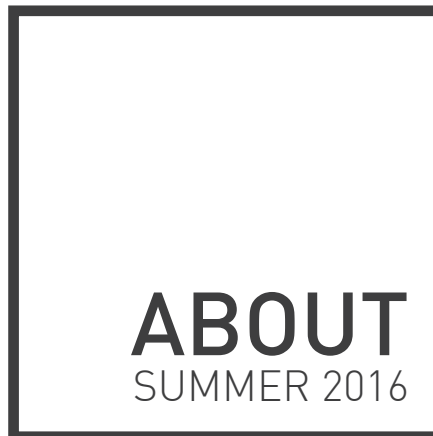
- 글 장재혁 -

표지 작품



Lullaby For Blind - 5. 2016. 145 x 145 x 315 mm ©Janh Jang

Contents



PART 1. ART	PART 2. ISSUE & STORY	PART 3. H news
8 HNART가 만난 작가 장재혁 - 달아나는 너를 잡아 두다	66 HNAP가 만난 기업 황칠 그리고 함박재바이오팜	86 H_DONATE HNAP의 사랑 나눔 이야기
20 NEWS HNART ARTIST	72 HNAP가 만난 기업 청현	88 H_EXHIBITION ART IN THE OFFICE Lullaby For Blind
22 ART IN LIFE - 파리에서 만나는 미술 - 6월에 유럽을 여행하는 당신에게	76 HNAP가 전하는 금융이야기 금융상품의 이해 I 2편 헛지펀드	90 H_경제칼럼 달콤쌉싸름한 자본주의 편안한 선택, 이로운 선택
44 HNAP와 아트이야기 - ART & BUSINESS I 예술이 가진 힘 - ART & FINANCIAL I HNART가 그리는 미래	80 HNAP의 투자이야기 TGCK 펀드 소개	94 H_문화행사

ABOUT SUMMER 2016

PART 1. ART

미술에 정답은 없다.

미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다른 관점, 작가와 작품의 가치 이 모든 것에 정해진 것은 없다.

단 하나,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세상을 볼 수 있는

상상력의 심지에 '탁' 하고 점화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달아나는 너를 잡아두다

글 HnART 이슬기



장재혁 작가를 만나기 위해 과천 현대미술관을 찾았다. 벚꽃은 봄에 절정을 알리고 있고, 미술관은 사람들의 소란 속에서도 깊은 안정감을 주고 있다. 마치 장재혁의 차분하고 깊은 작품과 같이 말이다.

장재혁의 작품은 꽃을 피워 날아갈 것 같은 작은 요정을 닮았다. 하지만 작가는 날아가는 요정을 붙잡아 두기 위해 곳곳에 작가만의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하지만 떠날 수 있게 발을 바닥(좌대)에 고정해 두지는 않았다. 이렇게 작가의 두 가지 마음이 한 개의 작품 속에서 갈등한다.

장재혁의 작품은 아름다워서 다가가게 만들다가도 다시 무서움에 물러나게 하는 묘함을 가진다. 소유할 수 있지만 소유할 수 없고, 만지고 싶지만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가시를 닮았다.



달아나는 너를 잡아두다

하나의 음, 하나의 조용한 박자, 하나의 색, 하나의 신중한 터치



Lullaby For Blind - 7. 2016. 65 x 110 x 200 mm ©Janh Jang

배려 깊고 세심한 손끝이 느껴지는 작품은 한번 한번 신중한 작가의 손 터치를 통해 탄생한다. 작업을 시작하면 하루에 한 두어 시간을 자는 것 이외에 다른 세계는 철저히 포기한 채 작가는 작업에 몰두한다. 장재혁이 즐겨 듣는 음악은 ‘3개의 음’으로 곡을 만드는 아르보 페르트(Arvo Part, 작곡가, 1935-)의 연주로 이 작곡가의 생각은 작품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와 사뭇 닮아 있다.

“나만 홀로 침묵과 더불어 존재한다. 오직 하나의 음만이 아름답게 연주될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다. 나는 단 하나의 음으로도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의 음, 또는 하나의 조용한 박자, 또는 하나의 소리 없는 순간들이 나를 만족 시켰다. 나는 아주 제한된 소재. 아주 기본적인 소재로 곡을 만들었다. 3화음으로 만든 3개의 음은 마치 종소리와 같았고 그래서 나는 이를 ‘중’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 -

“하나 하나의 선택한 색과 터치에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작품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해지거나 진지해지고, 스스로를 절제하곤 합니다.”

- 장재혁 작가 인터뷰에서 -

달아나는 너를 잡아두다

담다 All Things

장재혁은 하나의 표현대상에 양면의 세계를 함께 담아 버린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어둠과 밝음, 절망과 희망, 부패와 청렴, 부정과 긍정, 추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놓는다. 이 극단의 것을 담는 방법은 ‘검은 잿빛과 빛의 색’,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과 대비되는 불균형적 신체 혹은 신체의 변형물’이다.

작가가 사용하는 검은 색은 사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눈꺼풀에 의해 빛이 차단된 잿빛 검은색”이다. 눈을 감고 보이는 이면의 세계는 개인의 문제를 담은 세계일 수도 있고, 그룹, 사회, 나아가 국가와 종교, 서로 다른 사상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작가가 눈을 감고 본 세상 안에는 개인의 비극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의 고통이 보인다. 작가는 백혈병 아동병동 안에 지어지는 학교 디자인 설계를 위해 병원을 자주 찾은 적이 있었다.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작가가 아침마다 들은 소리는 다름아닌 골수 주사를 맞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였다. 한가롭게 인터뷰가 진행되는 봄날에 같은 도시 안 한 병원에서는 삶의 고통 속을 헤매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릴지 모른다고 했고, 연이어 작가는 티베트의 자유를 위해 국제사회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무언가로 스스로의 죽음을 자처한 티베트 국민들의 투쟁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티베트의 자유독립을 외치며 소신공양(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침)하는 승려는 잠정적으로 2009년~2011년 사이에 30여 명 이상 분신자살을 하였고 일반인까지 그 수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작가는 검은색을 통해 발견한 문제를 사람들에게 표출하고 주장하기보다는 각자의 생각과 위치에서 스스로 바라보길 원하는 듯하다.

달아나는 너를 잡아두다

생각의 참여를 촉구하고, 그 촉구하는 마음을 빛낸다



요셉 보이즈의 7천개의 떡갈나무 프로젝트

장재혁 작가는 자신의 경험으로 시작했지만 주변의 문제, 더 넓게는 동시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행동의 촉구보다는 생각의 촉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마치 요셉 보이즈가 〈7,000 떡갈나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7,000개의 떡갈나무를 나눠 주고 심으라고 했던 퍼포먼스를 떠올리게 한다. 심어진 나무 옆에는 한 개의 영속성을 대표하는 오브제인 돌이 함께 놓인다. 보이즈의 떡갈나무 심기는 “예술작품으로서의 사회(social sculpture - society as artwork)”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이 작품을 통해서 ‘심기’ 행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며, 예술을 통해 함께 사회에 참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두 작가가 가진 의미는 다른 방향일 수 있으나 “생각의 참여”를 불러일으키고자 한 마음은 같지 않을까.



Raindrop. 2013. Oil on Canvas. 1455 x 1800 mm ©Janh J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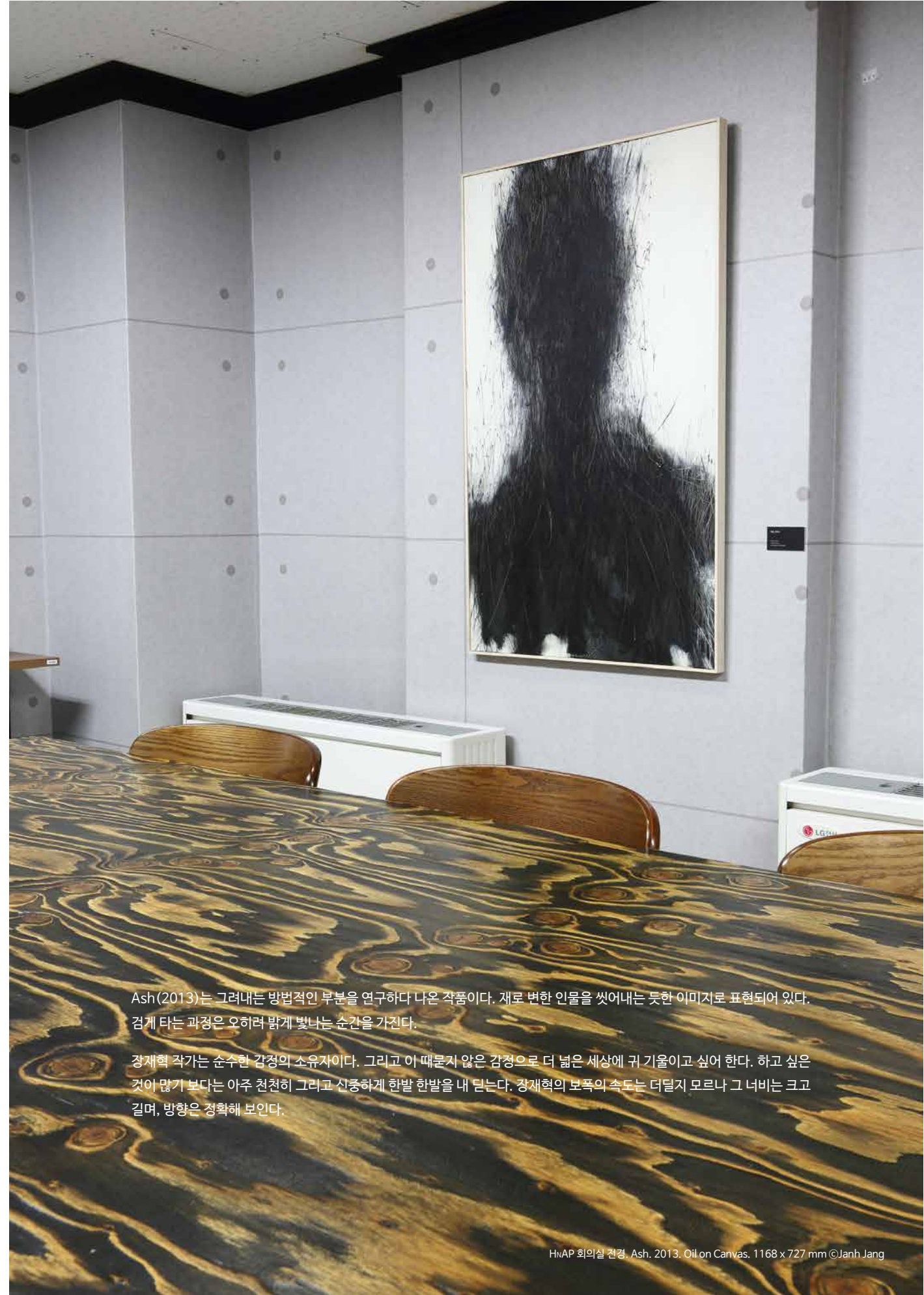
달아나는 너를 잡아두다

장재혁의 드로잉 & 회화

장재혁은 조소뿐만 아니라 평면작업에서 못다 표현한 감정을 분출시킨다. 조소 작업이 꼼꼼하고 세밀한 부분이 있고 작업 과정이 오랜 시간 집중해야 하다 보니 작가도 모르는 답답함을 풀어낼 대상이 필요했다. 그 대상은 페인팅으로 과감한 붓놀림과 소재로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들을 던져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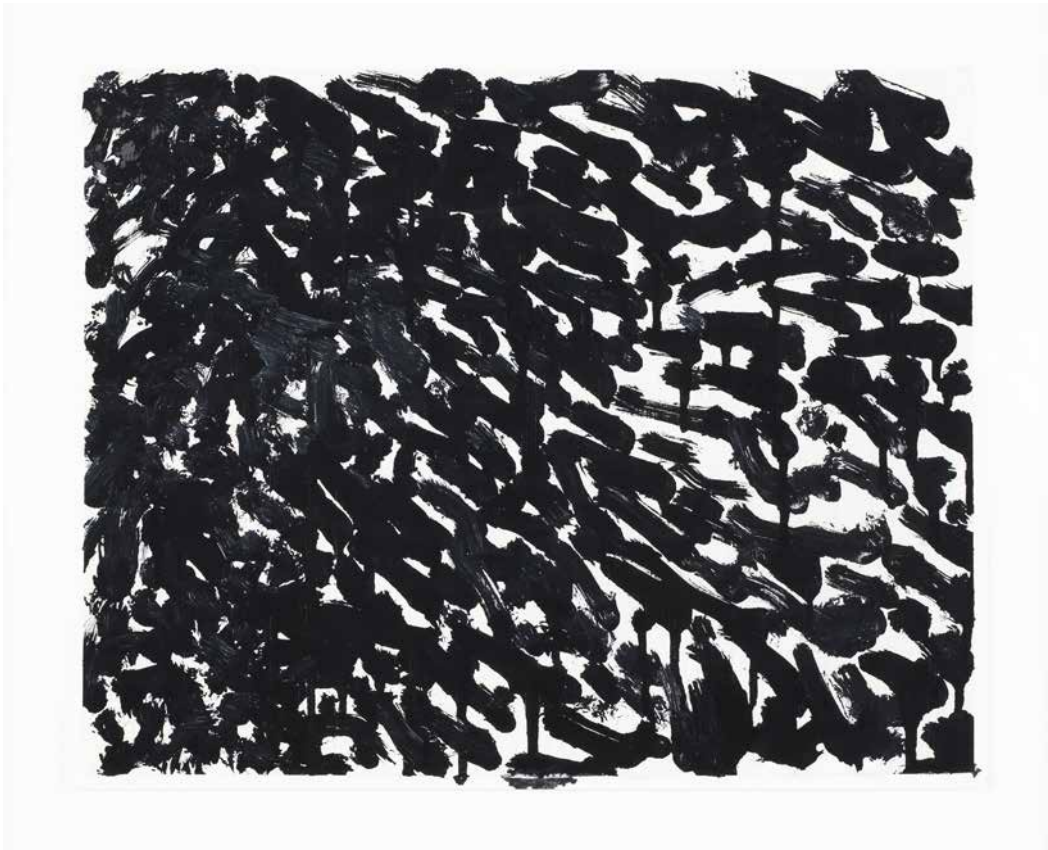
작가의 〈빗방울 rain drop〉작품은 빗방울이 튀어 오르는 모습을 다양한 사람의 형상으로 그려 냈다. 이 모습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티베트 승려 등)을 간혹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빛나는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빗방울이 고인 물에 부딪혀 다시 튀어 오르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비가 부스스 내리는 어느 날 창 밖을 보다가 바닥에 고인 물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흔적을 발견했지만 공기 중에 비는 눈에 보이지 않고, 길을 걷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바닥에 비칠 때, 순간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닌 바닥에서 저 사람을 주변으로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모습을 그려내 보이고 싶다고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Ash(2013)는 그려내는 방법적인 부분을 연구하다 나온 작품이다. 재로 변한 인물을 씻어내는 듯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검게 타는 과정은 오히려 맑게 빛나는 순간을 가진다.

장재혁 작가는 순수한 감정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이 때문자 많은 감정으로 더 넓은 세상에 귀 기울이고 싶어 한다. 하고 싶은 것이 많기 보다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한발 한발을 내 뒀다. 장재혁의 보폭의 속도는 더딜지 모르나 그 너비는 크고 길며, 방향은 정확해 보인다.



Flow Flow. 2016. Oil, Pigment on Paper. 340 x 270 mm ©Janh Jang



Three Scribbles For 'Lullaby For Blind' 시리즈. Oil, Pigment on Paper. 540 x 390 mm ©Janh Jang



장재혁

Janh Jang (b. 1982-)

장재혁은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졸업 후 곧장 데뷔를 꿈꾸었으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서른을 목전에 두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2015년 서울예술재단에서 주최한 제1회 포트폴리오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개인전을 가졌다. 작가의 첫 공모전 참가였다. 사실적인 인체와 오브젝트, 그리고 검은색을 바탕으로 현시대를 은유해내는 작품들은 장르의 구분 없이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표현해낸다. 그의 작품을 보면 마치 빈 컵을 만들어 내어 오는 것 같다. 그리고 관객이 그 컵에 음료를 따라 마시게끔 유도한다. 의도된 맛이 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입속에서 탄산이 터져 청량감을 흘뿌리거나 어쩌면 지워지지 않는 진한 원액을 흘려낼지도 모른다. 그가 삶을 대하는 방식이며, 유토피아를 향하는 손가락 끝을 흐트리는 방식이다.



Lullaby For Blind 전시모습

H-EXHIBITION | 사무실로 들어 온 미술

ART IN THE OFFICE

Lullaby
For Blind

(주)에이치앤에이파트너즈의 ART IN THE OFFICE의 두 번째 전시 〈Lullaby For Blind〉는 장재혁 작가와 함께 2016년 5월 24일 오픈을 진행하였다. 〈Lullaby For Blind〉는 여러 의미로 “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스스로 보는 것을 포기하거나 볼 기회를 만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작가의 자장노래이다. 장재혁의 자장노래는 양극으로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를 담고 있다. ‘롤라비(자장가)’로 이름 붙여진 요정들안에는 ‘어두움과 밝음, 절망과 희망, 부패와 청렴, 추함과 아름다움’과 같은 상반된 감정들이 담겨있다. 범위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 사회, 더 나아가 국가와 종교 혹은 서로 다른 사상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작가는 이 극단의 것들을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검은 잿빛과 그 사이에서 뿜어 나오는 빛의 색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대비되는 불균형적 신체로 이 역설된 상황들을 표현했다.

ART IN THE OFFICE의 〈Lullaby For Blind〉는 열린 결말을 지향한다. 한번쯤은 눈을 감고 저편의 세상을 떠올리며 공감이 더 커지길 바란다.

한편, 이번 전시는 2016년 7월 24일까지 HnAP 3층에서 진행된다.

ABOUT ISSUE 3

Editor & Writer

강 민

김태희

목진오

박훈정

윤병욱

이슬기

이정우

이준철

이지민

(주)에이치앤에이파트너즈

www.hn-ap.com

발행일 2016년 7월 27일 (통권 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1길 10

Tel +82 1544 1928

Fax +82 566 1928

가격 12,000원

Copyright © 2016 All Rights Reserved by HnAP Inc.